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❸ 천의무봉한 디테일



▶ **한줄 요약**
〈수월관음도〉는 고려불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월관음의 천의를 적외선 촬영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복잡해 관련 일본학자들이 혀를 내둘렀다.

천의 문양에 보인 상서로운 기운

"모든 사람들은 무지와 애욕 때문에 미혹의 세계를 윤회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소멸해 버릴 것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대해 조금의 싫증도 내는 일 없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또 실제로 자아를 지니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아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탐심 · 노여움 · 어리석음(탐 · 진 · 치)이라는 삼독(三毒, 세 가지 독)의 불꽃을 매일 태우면서 산다. 이런 상태이므로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 오직 맹목적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따름이다."

유일한 의지처, '자각'의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직후,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이와 같았다. 맹목적으로 삶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유일한 의지처는 '자각' 뿐이다. 맹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허망한 대상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아는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스스로를 아는 자각의 마음을 각성(覺性, 깨닫는 성품)이라고 한다. 각성은 곧 불성(佛性)이다. 즉, 부처의 성품이다. 우리가 5분 알아차리고 있으면, 우리는 5분 동안 부처인 것이다.

우리를 포용하는 관음보살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틱낫한 스님은 말한다. 우리는 항상 의지처를 찾는다. 그것이 명예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있지도 않는 자아이든, 공통점은 그것들은 항상 그렇게 있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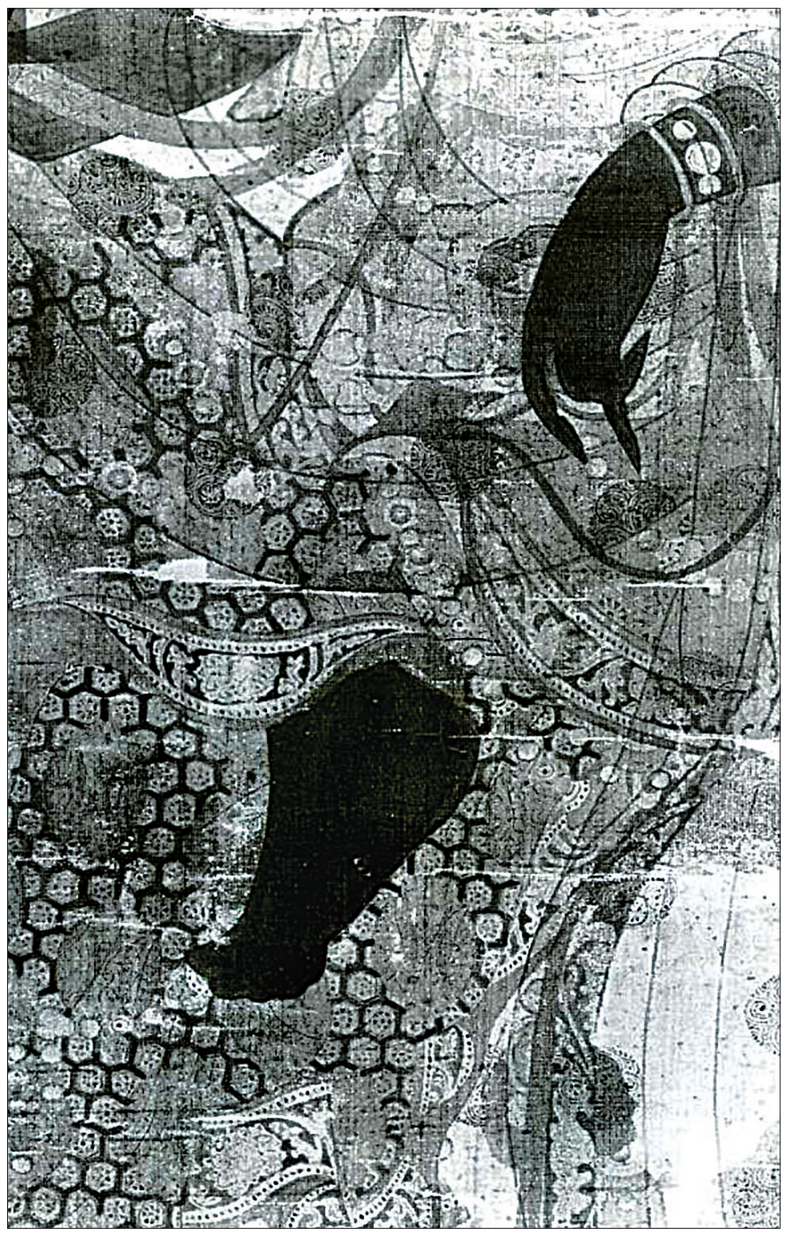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석가모니는 (위에 열거한) 그 어떤 관념도 아닌,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라' 고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께서도 일상적으로 하셨던 것이 이것이다. "저들(이교도들)이 너희 스승은 무슨 수행을 하며 일상을 보내냐고 묻거든, 들숨 날숨을 자각하는 수행을 한다고 전하여라"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 있다. 들숨 날숨을 자각하는 것을 '아나빠나 삿띠' 라고 한다. 아나빠나 삿띠 수행의 대가이신 진경 스님은 "호흡을 아는 것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라"고 하셨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중생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들끓는 마음이 치성할 때, 우리는 '자비관' 을 한다. 꺼지지 않는 갈애의 불꽃을 포용하며 이를 녹여버리는 '자비' 의 위력, 이를 관음보살이라고 한다.

수월관음의 대표적 특징인 투명 그물 사라. 이는 관음보살이 뭇 중생들 위로 펼치는 '큰 광명의 그물(대광망, 大光網)' 이다. 그렇다면, 자비의 대광망의 기능은 무엇일까? "나는 큰 광명의 그물을 놓아 중생들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 이로써 모든 중생을 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험한 길의 공포 · 뜨거운 번뇌의 공포 · 어리석음의 공포 · 결박의 공포 · 살해의 공포 · 가난함의 공포 ·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 · 소송의 공포 · 대중의 공포 · 죽음의 공포 · 사악한 길의 공포 · 모든 행로의 공포 · 뜻이 같지 않은 공포 ·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공포 · 일체 악의 공포 · 몸을 핍박하는 공포 ·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 근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화엄경 입법계품 中)"라고 한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하단 부분. 비단에 채색됐다. 일본 담산신사(談山神社) 소장돼 있다.

그림②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적외선 촬영한 모습(동경문화재연구소 제공). 일본 천승사(承天寺)에 소장돼 있다. 배채법을 사용한 몸체 부분인 손과 발은 검은색이지만 앞에서 그린 문양부분들은 세밀하고 아름답다.

應身으로서 수월 관음의 서기
천의內 다채로운 문양의 표현
적외선 촬영하니 디테일 확인
문양 세밀함에 日학자들 탄복

〈수월관음도〉 선풍적 인기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불화 주제는 〈수월관음도〉였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왕실 및 귀족층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월관음도〉를 주문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162점 중에 〈수월관음도〉는 45점으로, 다른 장르의 불화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점유하고 있다.

비율로 보자면, 물론 아미타불 관련이 40%이고 수월관음도는 35%이지만, 아미타불 관련 주제의 불화는 아미타독존도 · 아미타삼존도 · 아미타내영도 등 다양한 형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독 장르로 치자면 당시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이 '수월관음도' 이다. 그래서 으레 '고려불화' 라 하면 곧 '수월관음도' 를 지칭할 만큼 고려불화의 대명사격이 되었다.

'수월(水月)' 이란, '물에 비친 달' 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물에 비친 달' 과 '관음보살' 은 무슨 관계이기에, '수월관음' 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달은 둥근 달, 보름달을 말한다. 물에 비친 달, 수월의 메타포는 〈화엄경〉의 '월인천강(月印千江)' 의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월인천강' 이란 '한 개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친다' 는 뜻이다.

보살은 청정한 해와 달과도 같아/ 맑은 거울(皎鏡)이 허공에 있는 것 같네/ 그 그림자가 많은 강(衆水)에 나타나지만/물과 섞이는 바 되지 않네/ 보살의 청정한 교화의 법륜(法輪)/ 마땅히 깨달아 이와 같아/ 세상의 마음 연못(心水)에 나타나지만/ 세상과 섞이는 바 되지 않네.

즉, 맑은 거울과 같은 하나의 달이 그 그림자를 지상 수천 개 강에 나타내듯이, 한 분의 보살이 무수한 중생들의 마음에 투영되어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투영된 천 개의 달 그림자는 응신(應身,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나타나는 몸체로 이를 화신(化身)이라고도 함)을 말한다. 달이 있는 허공 바탕은 법신(法身)이고, 달은 보신(報身)이며, 물에 비친 달은 응신인 것이다. 관음보살은 보신이 응신한 것임을 말해준다. 응신으로서의 수월관음은 그 몸에 장엄한 서기(瑞氣,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데, 이 서기는 다채로운 문양들로 표현된다. 피어오르는 듯한 아름다운 문양들은 '보신이 응신으로 연기(緣起)'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그림①)

수월관음도 적외선 촬영해보니

이러한 다양한 문양 중첩(그림②)을 목격한 일본 학자들은 큰 충격에 싸였다. 1978년 야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에서 최초로 열린 〈고려불화〉 전시는 일본 학계에 커다란 경각심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화려한 디테일 때문이었다.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고려불화에 대한 적외선 촬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광 촬영법까지 동원하여 최신 기술로 작품을 찍고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림②는 적외선 촬영을 한 것인데, 배채법(비단 바탕 뒤에서 칠하는 방법)을 사용한 몸체 부분인 손과 발은 빛이 투과하지 못하여 검은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앞에서 그린 부분들은 빛을 투과시켜 보니 세밀하고 복잡하기가 그지없다. 적외선 촬영으로 디테일이 드러나자, 그 안에 구사된 고난위도 기법과 교묘한 효과에 일본 학자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